

19장 - 찬송하는 소리 있어

- (1)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 (2)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 (3)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 (후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13장 -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 (1)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 (2)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 (3)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 (4)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피로 값 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8월 20일(화) 기도 담당 : 이승현 집사

2019년 8월 19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9장 다 같 이
기 도 이철호 집사
성 경 봉 독 에스겔 6장 8~10절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 죄에 대해 한탄할 기회 』 박세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1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에스겔 6:8~10 >

8)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9)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10)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 참고의 말씀 < 히브리서 12:5,6 >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광고>

9월부터 새벽기도회(오전5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은 자원 부탁드립니다.
격주로 반주를 합니다. (문의: 010-6403-2441)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8월 19일(월)

온 땅의 주인되신 하나님,

오늘도 공의와 진리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삶 가운데 임하는 징계와 징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향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주님의 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한탄의 자리에서 나의 악을 발견하며 속히 그 죄악에서 떠나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에서 영원하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의 고비마다 권능의 손길을 펼치셔서 구원과 회복의 날들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여러 국론이 하나로 모아져 미래를 향해 힘 있게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핵 위기와 일본의 경제 보복의 위협을 종식시키시고 이기적 욕망과 분쟁이 그치는 평화로 이끌어주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세우신 주님,

130여년의 긴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생명 양식을 온 성도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교역자들과 해외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 동안 각 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행 중인 러시아 두나미스 사역도 온전한 열매로 결실을 이루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